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환자가 지각하는 한방간호업무

강 현 숙* · 김 원 옥* · 이 정 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통적 의술인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제도적 정착에 비해 발전의 속도가 늦어졌다. 그러나, 1960년도 이후 한의학이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김영준, 1991; 배원식, 1989; 임준규, 1988) 또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여 질병의 치유보다는 조절,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소비자의 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7년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 그 이용 율은 더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한방병원과 병상 수의 급증은 한방 간호 인력의 양적 질적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양의학의 중심지인 선진국에서도 한의학을 비롯한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Eisenberg, Davis, Ettner, Appoel, Wilkey, 1998),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호학문 영역에서도 한방간호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이향련, 조결자, 강현숙, 신혜숙, 2003)가 진행되고 있고, 세미나 등 학술대회도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 한방병원의 간호현장은 서양간호의 교육을 받고 한의학적 기본이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양의학에 근거한 기존의 간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양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병원에서 서양의 철학적 영향을 받은 간호를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간호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 방향에도 맞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오미정, 1999)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간호교육의 필요성과 한방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한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간호가 간호영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간호현장에서는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한방병원에서는 아직 전문적 간호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방간호의 영역도 확실히 구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방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방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불분명한 한방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한방간호의 질적 저하와 이로 인해 한방간호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와 간호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한방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방간호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한방 간호현장의 실태와 관련인의 의견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모든 의료행위의 중심은 대상자이므로 대상자/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한방간호업무가 무엇인지 파악 할 필요가 있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경희의료원 수간호사

으며, 동시에 환자의 회복을 목표로 함께 접근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의견도 파악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의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역할 정립에 필요한 한방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의견조사가 필요하다.

한방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연구로는 강현숙 등(1994)의 업무분석과 옥도훈(2000)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직무내용(손명숙, 1992; 안양희.1997)과 양, 한방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박영미, 2002; 박진형, 1994; 변창자, 최상순, 백승남, 1995), NIC에 근거한 간호중재 수행을 양, 한방 비교한 연구(염영희, 김성실, 김인숙, 박원숙, 김은주, 1999) 등 이 있으나 이들은 현재 한방간호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양방간호업무와 한방간호업무를 비교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한방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한방간호와 관련 있는 환자와 의료인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한방간호사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한방간호사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한방환자가 요구하는 간호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간호의 본질을 재확인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방병원간호사, 의사, 환자가 경험한 한방간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한방간호 개념을 비교한다.
2)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환자가 지각하는 현재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한방간호업무를 비교한다.
3)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방간호 업무를 비교한다.
4) 한방병원 간호사, 환자가 한방간호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비교한다.
5)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가 지각하고 있는 한방간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교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반 구조화된 개방질문을 통하여 의료인과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한방간호 업무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3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58명, 한의사 26명과 한방 입원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병원의 협조를 얻은 후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허락한자를 임의 표출하였다.

3. 자료수집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 까지 자료 수집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연구대상자와 면담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직접 기술하게 하였으며 입원환자 중 직접 기술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가 말한 내용을 연구자가 대신 기술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방간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한방간호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원환자에게 어떤 한방간호가 필요한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한방간호 제공에 대해 만족하다고 느꼈던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간호사가 한방간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자료 분석

자료는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연구자들이 기술된 자료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서 의미가 유사한 문항을 묶어 분류한 후 상위속성을 명명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문항 분류 및 상위속성 명명시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 3인의 연구자들이 다시 읽고 의견일치를 보일 때까지 충분히 논의한 후 합의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간호사는 전수가 여성이었다. 31~40세가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간호사 (N=58) 실수(%)	의사 (N=26) 실수(%)	환자 (N=28) 실수(%)
성별	남	-	25(96.1)	12(42.9)
	녀	58(100.0)	1(3.8)	16(57.1)
연령(세)	~20	-	-	1(3.6)
	21~30	20(34.5)	11(42.3)	5(17.9)
	31~40	30(51.7)	9(34.7)	2(7.1)
	41~50	7(12.1)	2(7.7)	3(10.7)
	51~60	1(1.7)	3(11.5)	9(32.1)
	61~	-	1(3.8)	8(28.6)
학력	무학	-	-	2(7.1)
	초등졸	-	-	2(7.1)
	중고졸	-	-	13(46.5)
	대졸	-	-	11(39.3)
	3년제	27(46.5)	-	-
	4년제	23(39.7)	-	-
	석사	8(13.8)	-	-
직위	수련의	-	18(69.3)	-
	조교수	-	5(19.2)	-
	부교수	-	1(3.8)	-
	교수	-	2(7.7)	-
임상경력(년)	~10	31(53.4)	18(69.3)	-
	11~20	24(41.4)	5(19.2)	-
	21~30	3(5.2)	1(3.8)	-
	31~40	-	2(7.7)	-
한방근무	~5	43(74.1)	-	-
경력(년)	6~10	15(25.9)	-	-
직업	무	-	-	6(21.4)
	전업주부	-	-	7(25)
	자영업	-	-	8(28.5)
	군인	-	-	1(3.6)
	학생	-	-	1(3.6)
	농업	-	-	1(3.6)
	회사원	-	-	4(14.3)

가장 많았고, 3년제 출신이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10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한방 근무경력은 5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의사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21~30세가 가장 많았고, 따라서 수련의가 가장 많았고 임상경력은 10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51~60세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 졸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와 전업주부가 많았다<표 1>.

환자들의 질병 특성을 보면 대다수가 뇌졸중이었고, 입원일 수는 1~10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2개월 순이었다. 환자의 과반수이상이 양방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한방병원 입원 경험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첫 번째였다<표 2>.

<표 2> 환자의 질병특성 (N=28)

특성	구분	실수(%)
진단 명	구안와사	5(17.9)
	뇌경색	19(67.8)
	뇌출혈	4(14.3)
입원일수(일)	1~10	11(39.3)
	11~20	4(14.3)
	21~30	2(7.1)
	31~60	8(28.6)
	61~	3(10.7)
양방입원	있다	15(53.6)
경험유무	없다	13(46.4)
한방입원	첫번째	27(96.4)
횟수	두번째	1(3.6)

2.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간호사가 지각한 한방간호개념

간호사는 한방간호개념을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간호”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60.3%), 의사는 “한방치료에 대한 보조적 역할”이라고 응답한 자가 가장 많았으며(38.5%), 다음 순위는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간호”(26.9%) 였다. 이에 비해 환자는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한 간호”(50.0%)와 “양방간호와 차이 없음”(42.8%)이라고 응답하여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즉 간호사는 한방 고유의 간호가 있다는 입장이고, 환자는 없다는 입장이며, 의사는 간호사와 환자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3. 한방병원에서 수행하는 한방간호 업무

실제 수행하고 있는 한방간호업무에 대해 대부분의 간호사는 “한약 복용 및 침 등의 처치에 대한 설명”(96.6%)과 “발침 등 직접적인 한방간호 행위”(43.1%)라고 응답하였으며, 의사도 이와 유사하게 “한약 복용 및 침 등의 처치에 대한 설명”(57.7%)과 “발침 등 직접적인 한방간호 행위”(34.6%)라고 응답하여 간호사와 의사는 전통 한방요법과 관련된 간호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 많은 수가(46.4%) “한방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직접간호”라고 응답하였고, 35.7%가 “한약 복용 및 침 등의 처치에 대한 설명” 28.6%가 “특별한 한방간호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한방관련 간호업무라기보다는 양방간호업무와 동일한 간호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표 4>.

4. 한방병원에서 필요한 한방간호 업무

필요한 한방간호업무에 대해서 간호사는 추나(50.0%), 뜸·부황(31.0%), 응급시 침요법(19.0%), 아로마 요법(15.5%) 등을 수행하여 전통적 한방요법을 간호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한방 교육과정과 전문간호사 제도 정립(17.2%), 환자교육(15.5%)과 새로운 한방간호의 개발(15.5%) 등과 같은 새로운 한방간호정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의사는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42.3%)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고, 한의학적 사고에 의한 환자 접근(26.9%)과 뜸, 부황(26.9%)이 필요한 간호업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잘 모르거나(32.1%), 따뜻하고 친절한 돌봄(28.6%)이라고 응답하였고, 환자의 25.0%는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5>.

이와 같이 환자는 한방간호 업무에 대해 의료인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특이한 점은 세 집단 모두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5.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한방간호에 대한 만족

<표 3> 한방간호개념 정의*

상위속성	속성	간호사 (N=58)	의사 (N=26)	환자 (N=28)
한방 고유의 간호가 있음	·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간호	35(60.3)	7(26.9)	1(3.6)
	· 한방적관리와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	-	5(19.2)	-
한방 고유의 간호가 없음	· 양방간호와 별 차이가 없음	12(20.7)	4(15.4)	12(42.8)
	· 정신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돌보는 것	6(10.3)	-	-
	· 한방치료에 대한 보조적 역할	5(8.6)	10(38.5)	1(3.6)
	·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한 간호	-	-	14(50.0)

* 중복 응답 수임

<표 4> 한방병원에서 수행하는 한방간호 업무*

상위속성	속성	간호사 (N=58)	의사 (N=26)	환자 (N=28)
전통 한방요법과 관련된 간호수행	· 한약복용 및 침 등의 처치에 대한 설명	56(96.6)	15(57.7)	10(35.7)
	· 발침 등 직접적인 한방간호하기	25(43.1)	9(34.6)	1(3.6)
	· 한방치료 보조	-	6(23.1)	-
	· 양생간호	-	2(7.7)	-
양방간호수행과 동일함	· 한방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직접간호	39(67.2)	9(34.6)	13(46.4)
	· 특별한 한방간호가 없다	20(34.5)	10(38.5)	8(28.6)

* 중복 응답 수임

<표 5> 한방병원에서 필요한 한방간호 업무*

상위속성	속성	간호사 (N=58)	의사 (N=26)	환자 (N=28)
전통적 한방요법의 간호 활용	· 추나요법	29(50.0)	2(7.7)	2(7.1)
	· 뜸, 부황요법	18(31.0)	7(26.9)	1(3.6)
	· 응급시 침 요법	11(19.0)	-	2(7.1)
	· 발마사지	-	-	-
	· 발침	-	4(15.4)	-
	· 아로마 요법	9(15.5)	-	-
	· 양생간호	5(8.6)	-	3(10.7)
	· 테이핑 요법	3(5.2)	-	-
	· 한방적 진단 지도에 의한 환자 상태파악	-	4(15.4)	-
	· 한의학적 사고에 의한 환자 접근	-	7(26.9)	-
새로운 한방간호 정립 희망	· 한의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는 환자 교육	9(15.5)	-	-
	· 새로운 한방간호의 개발	9(15.5)	-	-
	· 양·한방 접근 간호	3(5.2)	-	-
	· 한방교육과정과 전문간호사 제도정립	10(17.2)	2(7.7)	-
친절 및 기타	· 따뜻하고 친절한 돌봄	-	-	8(28.6)
	· 잘 모름	-	-	9(32.1)

* 중복 응답 수임

한방간호에 대해 환자가 만족을 느낀 경우를 알아본 결과 간호사의 34.5%와 환자의 25.0%가 만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간호사는 오히려 양방간호로(39.6%), 환자는 간호사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39.3%)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6>. 한방간호 제공으로 보람/만족을 경험한 경우는 적지만 만족한 경우는 설명이나 한방재활요법이나 경락 마사지 같은 직접간호를 제공한 경우이었다.

6. 한방간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한방간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구체적 이유를 간호사(41.1%), 의사(76.9%) 모두 "한의학적 지식

<표 6>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한방간호에 대한 만족*

상위속성	속성	간호사 (N=58)	환자 (N=26)
한방간호 제공	· 한방적 재활요법으로 호전 됨	8(13.8)	2(7.1)
	· 경락마사지로 안위감 증진 및 부종완화	7(12.1)	-
	· 양생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 증진	-	4(14.3)
	· 발침 간호 제공으로 안위 증진	-	1(3.6)
한방간호와 관련 없음	· 만족(보람)을 경험하지 못함	20(34.5)	7(25.0)
	· 양방간호로 만족(보람)을 경험함	22(39.6)	-
	·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에 만족함	-	11(39.3)

* 중복 응답 수임

<표 7> 한방간호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상위속성	속성	간호사 (N=58)	의사 (N=26)
한방간호교육의 부재	· 한의학적 지식과 이해 부족	24(41.1)	20(76.9)
	· 체계적으로 한방간호가 정립되어있지 않음	17(29.3)	5(19.2)
	· 체계적인 한방간호교육 기회 부족	13(22.4)	6(23.1)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 부족	· 양·한방협진으로 인한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 부족	15(25.9)	7(26.9)
	· 병원행정체계의 지원 부족	6(10.3)	4(15.4)
	· 전문간호사 제도 불인정	-	2(7.7)
	· 의사와 간호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9(15.5)	-

* 중복 응답 수임

과 이해 부족"이라고 하였으며, 간호사와 의사가 첫째, 한방간호교육의 부재, 둘째,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한방간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표 7>.

Ⅳ. 논　　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방병원과 병상수의 급증으로 인해 한방간호 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방간호사의 역할은 아직도 불분명한 채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한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방간호업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한방간호사의 역할정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는 한방간호개념을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간호"라고 응답한자가 가장 많았듯이 한방고유의 간호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비해 환자는 따뜻한 간호 또는 양방간호와 차이가 없어 한방고유의 간호는 없다는 입장이며, 의사는 간호사와 환자의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간호사는 한방고유의 간호가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함께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한방간호에 관한 유형 연구(신혜숙, 1994)에서 한방간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한방간호사와 한의사가 한방간호의 원리와 간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형"에 속해 있다는 점과 연관 됨을 알 수 있었다.

한방간호란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음양오행의 철학적 배경 및 학문적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최적의 심신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 이다(신혜숙, 1994). 그러므로 한방간호사는 한방간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과 관련된 기본지식의 이해가 필요하며, 한방고유의 간호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간호사는 보조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사와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환자는 따뜻한 간호 또는 양방간호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한 측면으로는 차별화된 한방간호가 아닌 양방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 온정적이고 인정이 두터운 유교적인 도리와 정(情)을 중요시하므로(엄영란, 1994) 양방간호와 한방간호의 영역 구분보다는 간호의 본질적인 돌봄의 특성인 따뜻한 간호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수행하고 있는 한방간호업무에 대해서 대부분의 간호사와 의사가 "한약복용 및 침 등 처치에 관한 설명"과 "발침 등 직접간호"와 같은 전통 한방관련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환자는 한방관련 간호업무보다는 양방간호업무와 같은 간호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간호사와 의사는 양방간호업무와 같은 간호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환자도 전통 한방관련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한방간호 현장에서 한방과 양방간호행위가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한방병원 8개 병동에 근무하는 낮번, 초번, 밤번 간호사 총 24명이 일주일간 기록한 업무기록지 168매를 분석한 결과(강현숙 등, 1994) 환자 중심의 활동 중에서 직접간호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직접간호 활동영역의 업무내용은 활력징후, 섭취 및 배설량 측정, 투약, 욕창 예방, 위관영양, 구강간호, 유치도뇨관 관리, 회음간호, 침, 뜸 시술과 관련된 업무 등 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상황으로 양방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한방에서의 업무내용은 경락설 등 한의학 관련이론을 근거로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섭취 및 배설량 측정은 서양의학, 한의학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업무지만 한의학에서는 치료법이 주로 대소변의 원활한 소통과 발한, 토법 등이기 때문에(동의보감국역위원회, 1999) 치료경과를 알기 위하여 섭취량, 배설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같은 간호업무지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전통 한방관련간호업무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한방간호 업무를 간호사의 경우는 추나(50.0%), 뜸·부황(31.0%), 응급시 침요법(19.0%), 아로마 요법(15.5%) 등 과 같은 전통적 한방요법이었고, 그밖에 한방 교육과정과 전문간호사 제도 정립(17.2%), 환자교육(15.5%)과 새로운 한방간호의 개발(15.5%) 등과 같은 새로운 한방간호 정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의사는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42.3%)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고, 한의학적 사고에 의한 환자 접근(26.9%)과 뜸·부황(26.9%)이 필요한 간호업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대다수의 환자는 업무자체 보다는 따뜻하고 친절한 돌봄을 원하고 있어 의료인과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는데, 친절은 설명, 포용, 온정, 관심, 능력, 신뢰, 존중, 지

지 등을 포함하고(강현숙, 김일원, 김원옥, 장광자, 1996)있으므로 좋은 간호를 받고 싶은 마음을 친절함으로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환자, 간호사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의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 (이애란, 양경희, 한선희, 장혜숙, 1993)에서는 간호사는 신체적 안위 간호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환자와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간호사와 환자는 정신 심리 안위 간호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간호사와 의사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방간호 업무에 대해 간호사와 의사의 견해가 비교적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갈등의 요인이 적을 뿐 아니라 한방간호업무와 역할 정립을 위한 합의 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며, 두 연구결과의 차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로 인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의사, 환자 모두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한방병동 근무 간호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간호에 대해 환자가 만족을 느낀 경우를 알아본 결과 간호사의 34.5%와 환자의 25.0%는 보람이나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호사는 오히려 양방간호로(39.3%), 환자는 친절한 태도(39.9%)에 만족해하였다.

양, 한방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변창자 등 의 연구(1995)에서 한방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인 박진형(1994)의 연구결과가 대조적인 것처럼 간호사의 근무환경이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에서 간호사는 오히려 양방간호로, 환자는 친절한 태도에 만족해하는 것은 간호사의 경우 한의학의 기초이론이나,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문희자, 김광주, 박신애, 김일원, 박화순, 2002). 한편 환자는 무엇보다도 친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간호업무는 따뜻하고 친절한 돌봄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 한방간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방간호교육의 부재와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으로 보았으며, 이는 한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많은 연구(강현숙 등, 1994; 박영미, 2002; 신혜숙, 1994; 안양희, 1997; 오미정, 1999; 옥도훈, 2000; 이애란 등, 1993)에서와 같은 견해를 보여 한방간호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방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립이 요청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그리고 환자가 경험한 한방간호업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조사연구로 2002년 10월부터 3개월간 S시에 소재한 3개의 한방병원 간호사 58명, 한의사 26명, 입원환자 28명을 임의 표출하여 반 구조적 개방질문을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들이 주의 깊게 읽으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진술들을 모아 요목화한 후 여러 차례 검토하고 논의하여 분류하고 범주화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방병원 간호사, 의사,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한방간호개념은 간호사의 경우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의 전통간호”(60.3%)이고 의사의 경우 “한방치료에 대한 보조적 역할”(38.5%), 환자의 경우는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한 간호”(50.0%)와 “양방간호와 차이 없음”(42.8%)이었다.
   즉, 간호사는 한방고유의 간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환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의사는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 한방병원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한방간호업무에 대해서 간호사와 의사 모두 “한약복용 및 침 등 처치에 관한 설명”(간호사:96.6%, 의사:57.7%)과 “발침 등 직접간호”(간호사:43.1%, 의사:34.6%)와 같은 전통 한방관련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환자는 한방관련 간호업무보다는 양방간호업무와 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한방병원에서 필요한 한방간호업무에 대해서 간호사는 추나, 뜸, 부황 등 전통적 한방요법을 간호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의사는 한의학적 사고로 환자에게 접근하여 환자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환자는 따뜻하고 친절한 돌봄을 원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간호사, 의사, 환자 모두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4. 한방간호에 대해 환자가 만족을 느낀 경우를 알아본 결과 간호사의 34.5%와 환자의 25.0%는 보람이나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호사는 오히려 양방간호로(39.3%), 환자는 친절한 태도(39.9%)에 만족해하였다. 한방간호에 대해 만족한 경우는 설명이나 직접간호를 통해서였다.
5. 한방간호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호사,

의사 모두 첫째로 한방간호교육의 부재와 둘째,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보았고 구체적 이유로 한의학적 지식과 이해부족(간호사:41.0%, 의사:76.9%)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전문 간호사 제도문제도 거론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와 의사는 한방고유의 간호를 인정하고 실제로 한방관련간호업무를 미약하지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면에 환자는 한방고유의 간호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실제로 양방간호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 한의학적지식을 근거로 한 환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한의학적 지식과 이해부족이 한방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방해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체계적인 한방간호교육의 기회 확대와 한방간호사 역할 정립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현숙, 김일원, 김원옥, 장광자 (1996). 입원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친절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3*(2), 259-271.

강현숙 외 9인 (1994). 한방근무 간호사의 업무분석. *대한간호, 33*(5), 63-75.

김영준 (1991). *한방병의원 특성에 따른 항의사의 양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의보감국역위원회 (1999).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문희자, 김광주, 박신애, 김일원, 박화순 (2002). 한·중 간호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비교연구, *동서간호학 연구지, 7*(1), 32-47.

박영미 (2002). *한방병동과 내과병동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박진형 (1994). *한방병동 간호사와 내과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배원식 (1989). 한의학의 전승과 창조, *대한한의학 학회지, 10*(2), 9-17.

변창자, 최상순, 백승남 (1995). 한방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의 비교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1), 97-111.

손명숙 (1992). *한, 양방병원 임상간호사의 직무내용 차이분석 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신혜숙 (1994). *한방간호이론 구축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안양희 (1997). 일 대학부속 한방병원 간호사의 직무내용 및 직무량 분석. *동서간호학연구지, 2*(1), 54-61.

이향련, 조결자, 강현숙, 신혜숙 (2003) 한방간호 연구경향 분석, *동서간호연구지, 7*(1).

이애란, 양경희, 한선희, 장혜숙 (1993). 한방병원 간호업무에 대한 환자, 간호사 및 한의사의 인식 비교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2), 284-298.

엄영란 (1994). 한국적 간호윤리 정립을 위한 전통적 가치곤의 고찰. *대한간호, 33*(4), 15-27.

염영희, 김성실, 김인숙, 박원숙, 김은주 (1999). 간호중재분류(NIC)에 근거한 간호중재수행 분석 2-한방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4), 802-816.

오미정 (1999). 한방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30,* 197-207.

옥도훈 (2000). *한방보건의료 과정 중 간호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임준규 (1988). *한의학의 새 좌표와 나아갈 길,* 보건신문, 7월 7일자.

Eisenberg, D. M., Davis, R. B., Ettner, S. L., Appoel, S., Wilkey, S., et al.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JAMA, 280*(18), 1569-1575.

- Abstract -

Key concept : Oriental nursing

Oriental Nursing Activity Perceived by Nurses, Doctors, and Patients in an Oriental Hospital

Kang, Hyun Sook · Kim, Won Ock**
*Lee, Jung Min***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to compare the different concepts of oriental nursing as perceived by nurses, doctors, and patients in oriental hospital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 Head Nurse, Kyunghee Medical Center

Method: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Fifty-eight nurses, 26 doctors and 28 inpatients in 3 oriental hospitals were recrui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02.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mi-structured open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Result: 1. The perceived concept of oriental nursing varied among the subjects. The nurses regard it as "a traditional nursing activity based on oriental philosophy" (60.3%), while the doctors viewed it as "a supplement to western nursing activity"(38.5%). For patients, the oriental nursing activity was considered as "a cordial form of nursing like that from a family member" (50.0%) and "an activity that doesn't differ so much from western nursing" (42.8%).

2. As for oriental nursing activities actually practiced, both the nurses and the doctors agreed that they carry out traditional oriental nursing activities such as explaining the treatment (taking oriental medicines, administering acupuncture etc.; nurses 96.6%, doctors 57.7%) and direct care like removing acupuncture needles (nurses 43.1%, doctors 34.6%). Patients replied that a western nursing activity is performed rather than an oriental nursing activity.

3. As for the required oriental nursing activity, nurses stated they apply traditional oriental methods such as CHUNA exercise therapy, moxibustion, cupping method etc. in their nursing practice. Doctors remarked that they tryto understand the patients' state by approaching patients through an oriental way of thinking. Patients wish to get kindly care.

4. As a whole, 34.5% of nurses and 25.0% of patients have experienced little satisfaction from oriental nursing activity. Nurses found it valuable to carry out western nursing (39.3%), while patients found satisfaction in the use of a cordial attitude (39.9%).

5. Both nurses and doctors defined the first reason that oriental nursing activity cannot be performed more often was the lack of education in oriental nursing, and the absenceof interest in oriental nursing.

Conclusion: Nurses and doctors appreciate an oriental way of nursing, and think that this type of nursing activity has been carried out even though it may be infrequent. However this oriental nursing activity has won recognition from patients who view western nursing activity as being more important.